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분석

Structural Analysis of Time and Money Attitudes,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and Leisure Satisfaction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 수 허 경 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 교 수 차 경 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강 사 유 수 현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Univ.
Professor Huh, Kyungok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Univ.
Associate Professor Cha, Kyung-Wook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Univ.
Instructor Yoo, Soo-H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ypes of time and money attitudes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nd compared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different groups, which are classified by attitudes toward time and money. It also verified a structural model for the relationship of leisure satisfaction and the attitudes toward time and money, and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 주저자 : 허경옥(kohuh@sungshin.ac.kr)

** 교신저자 : 차경옥(kwcha@sungshin.ac.kr)

Data were obtained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512 adult consumers. Using factor analyses and cluster analyses,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time and money attitudes. The time attitude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four clusters: time-insensibility, future-oriented, present-oriented, and past-oriented. The money attitude was divided into four clusters: future safety, stinginess/anxiety, diversion, and power/prestig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pensity of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to seek fashion and conspicuousness was higher for time-insensibility group than for the others. However, the propensity of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for leisure was higher for the future-oriented group. The level of leisur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for the time-insensibility group. Second, the propensity of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to seek fashion and conspicuousness was higher for those who considered money as tools for diversion and power/prestige. The propensity of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for leisure was higher for the future safety and stinginess/anxiety groups. The level of leisur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diversion group. Third, from the results of structural analyses, the time-insensibility attitude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to seek fashion and conspicuousness. The future-oriented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opensity of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for leisure. The money attitudes of diversion and power/prestige had positive impacts on the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to seek fashion and conspicuousness, although they had negative effects on the propensity of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for leisure. The leisure consumption behavior to seek fashion and conspicu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leisure satisfaction, although the rational consumption behavior for leisure had a negative effect.

Key Words : time attitude(시간에 대한 태도), money attitude(화폐에 대한 태도), leisure consumption behavior(여가소비행동), leisure satisfaction(여가만족도), structural equation model(구조분석)

I. 서론

산업화 및 경제성장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증가시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산력 증대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으며, 이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동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에 영향을 받아, 여가활동이 개인 삶의 질,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여가활동은 삶의 질 향상, 자아성장,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유 있는 삶 영위, 자아존중감 유지와 같은 삶의 행복과 관련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관계적 소통을 자극하고 사회통합의 수단이 되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윤소영, 2007, 이상미, 2009, 오희웅, 2010).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확대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지출 증가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2010)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오락·문화 실질소비액은 34조 2천억 원 규모로, 실질 소비지출에서 8.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2%대 안팎에 머무르던 오락·문화 소비지출 비중이 2000년대 초반 7%대를 거쳐 9%가까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복잡한 산업 구조 속에서 보다 많은 사회·문화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개인에게 있어 시간과 화폐는 중요한 희소자원이다. 시간과 화폐는 개인이나 가족의 목표달성, 다른 자원의 사용 및 개발, 삶의 만족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가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여가활동 시간과 비용지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화폐에 대한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 현대인의 여가활동에는 복잡한 현실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큰 영향을 미치며, 시간과 화폐가 여가의 비용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시간과 화폐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여가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여가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과 화폐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개개인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는 여가소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자기개발, 즐거움과 만족감 충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여가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여가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에서 개인이 시간과 화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여가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시간과 화폐를 중요한 변수

로 다루어 왔으나,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즉 주관적 차원에서의 지각에 초점을 둔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특히 여가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과 화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함께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심리적 요인인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태도유형 집단 간에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소비행동을 매개로 하여,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시간과 화폐에 대한 주관적 태도에 따라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는 시간과 화폐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 이행하며, 차별화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여가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시간에 대한 태도와 여가소비행동

시간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반응이다. 시간은 인간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자원이지만, 개인마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시간 경과에 대한 느낌, 주관적 시간 개념이 다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고, 습관의 유형에 따라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특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대한 태도는 주변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라이프스타일이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기찬, 1984).

1978년 미국 소비자연구협회(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에서 시간의 의미, 시간 지향성, 시간 예산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한 이후, 시간에 대한 태도가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가 되었고, 선행연구들은 시간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Graham(1981)은 시간을 직선형 분리가능 사고형, 미래지향형, 과거·현재·미래에 반복되지 않는 선형적 인식형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이때 미래지향형은 현재의 활동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파악하였다. 백숙현(2003)은 순환적-전통적 사고형(과거-현재지향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까지 주기적인 형태를 따라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구조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가영(1999)은 과정적-전통적 사고형(과정 중심형)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고유형으로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즉 시간과 화폐를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소비재로서의 시간 소비개념은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시간은 개인의 태도와 주어진 자원, 관리행동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관리는 결국 시간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창호(1997)는 시간갈등을 해소하여 걱정된 휴식과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방법이 시간관리라고 정의한 바 있고, 이남미·이근모(2010)는 시간에 대한 태도와 시간관리가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시간에 대한 태도는 여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강형길·임진선·조희태(2014)의 연구에서는 시간에 대한 태도와 여가활동, 여가관여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미래적 시간태도는 과시매력 지속적 여가관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속

명론자적 시간태도는 인지적, 정의적 여가활동, 위험가능성 지속적 여가관여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부정적, 현실쾌락적 시간태도는 과시매력 지속적 여가관여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위험가능성 지속적 여가관여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순목(2001)의 연구에서는 소득, 핵가족화, 이동성, 교육수준과 더불어, 여가시간이 여가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영아(2007)는 시간인식과 여가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적 특성 보다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여가소비행동과 여가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가소비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가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시간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대한 태도를 심리적 자원에 대한 주관적 시간 지각으로 정의하고, 여가소비행동을 설명하는 선행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화폐에 대한 태도와 여가소비행동

화폐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기질이나 인생경험 혹은 주어진 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화폐에 대해 각기 다른 심리적 가치를 부여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넘어,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 화폐에 대한 태도는 자유, 사랑, 품질 등 긍정적인 면과 불신, 실패, 부적합성 등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영신, 2001).

화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국외의 연구들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Goldberg와 Lews(1978), Yamuchi와 Templer(1982), Furnham(1984)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외국의 척도를 변형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로 확대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화폐태도와 소비행태를 분석한 연구(김정훈·이은희, 2002; 박정숙·차경옥, 2003; 홍은실, 2005; 윤철경·조아미, 2004; 이신정, 2005; 우은정 2008 등), 화폐태도와 금전관리를 분석한 연구(허경옥·백은영·정순희, 1997; 우석봉, 2006 등), 대학생들의 화폐태도를 분석한 연구(김정훈·동환숙, 1999; 2002), 그리고 화폐태도와 동기지향성,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장재운, 2000; 김영숙·이신정, 2005) 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화폐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박은아(1994)는 화폐에 대한 태도가 현실적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허경옥·백은영·정순희(1997)는 화폐에 대한 태도를 감정충족의 도구, 안전의 도구, 인식한 태도, 성공의 척도, 불안감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별로 가계의 지출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화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소비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정훈·동환숙(2002)에서는 화폐를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가 바람직한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소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berts와 Jones(2001)는 화폐를 권력과 명예의 도구로 지각하는 태도가 충동구매를 증가시키는 반면, 가격민감성(불신)은 충동구매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신(2001)의 연구에서는 화폐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의 강박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Tang, 1992), 비합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소비생활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정훈·이은희,

2002). 또한 변화하는 화폐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Roberts & Jones 2001).

한편, 사회변화와 더불어 여가활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여가관련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지향적 여가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가와 관련된 소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화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철원·여인성(2001)은 여가소비행동이 개인과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 거주지, 가족관계 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생활양식과 개인의 의식, 가치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백은영(1997)의 연구에서는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교양오락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문숙재(1991)는 여가활동의 선호도와 실제 참여도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여가비용을 지적하였으며, 여가비용에 대한 제약이 개인과 가계의 여가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Gordon과 Caltabiano(1996)은 개인이 몰입할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이고, 소득지출관리 태도와 역량이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을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폐에 대한 태도와 여가소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다양한 여가활동은 서로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내적 만족을 위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여가활동의 유형은 그 분류 형태나 내용에 있어 다양함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Kaplan(1975)은 여가활동에 대해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여섯

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타인과의 교체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개인사고, 단체 활동으로 분류하고, 규칙과 전통에 의해 고정된 활동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경기, 예술 활동, 동적 활동, 정적 활동 등으로 분류하였다.

허경옥(2006)은 여가활동을 적극적 활동, 소극적 활동, 사교·오락 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홍성희·문숙재(1991)는 자기계발적, 가정지향적, 시간소일적, 사교적, 자녀중심적 활동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보현(2001)은 여가활동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신체적 여가활동에 스포츠활동, 피로회복활동을 포함하였고, 예술적 활동에 예술의 관람 및 참여, 오락적 활동에 매스미디어 시청, PC, 놀이, 행락 및 관광을, 지적 활동에 교육 및 취미활동, 사회적 활동에 친목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였다.

윤소영(2007)은 여가활동을 파티나 게임을 통한 교체활동, 신문·잡지·TV·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이용활동, 학원이나 인터넷 강좌를 통한 학습활동, 종교활동, 영화 및 연극관람활동, 스포츠활동 및 그 외의 취미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영숙(2004)은 크게 관람활동, 자기개발활동, 스포츠활동, 여행활동, 기타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윤소영·차경옥(2004)은 여가활동의 유형을 스포츠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강습활동, 취미 및 창작활동, 사회·교제활동, 가족여가활동, 행락 및 관광, 그리고 휴식활동으로 분류한 뒤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여가활동을 포함시켰다.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 유도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여가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현재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발현된다(이종길, 1992). 어떠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이나 기분전환과 같은 보상을 얻었을 때, 개인은 그 여가활동을 만족스

러운 행위로 인지하게 된다. 이미연(2004)은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여가정체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여가활동에 더욱 많은 애정을 갖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여 여가와 생활만족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가에 대한 지식과 가치(이경자, 1984), 자아개념(박문환·이제홍, 1997; 방지선·하지원, 1997; Fines & Nichols, 1994), 사회적 능력(이성철·현무성, 2002; Caldwell & Weissinger, 1994)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과 가계의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강신욱, 1998; 강효민·남재화, 2000; Gordon & Caltabiano, 1996) 등을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 중 하나는 여가비용 지출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다. 여가비용제약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축시키고 여가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문숙재·정순희·허경옥, 2000). 이정연·심미영·김영숙(1997), 이현아·이기영·김외숙(1999)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비용이 여가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여가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숙·이신정(2005)은 앞선 연구들과 달리 여가비용 지출이 반드시 높은 여가만족도로 이어지는는 않음을 밝힌 바 있다.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여가비용 지출이 높지만, 이것이 반드시 여가만족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성유·성기환(2011)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소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가만족도를 교육, 정서, 신체, 환경, 사회만족도로 세분화하고 여가만족도와 여가소비지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지출금액이 적은 집단의 여가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숙(2004)의 연구에서도 여가지출 금액이 적은 대

학생이 많은 대학생보다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이 여가만족도와 여가소비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선호도, 동기, 개인의 태도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영숙·심미영(2004) 연구에서도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다양한 매개변수의 고려가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라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소비행동을 매개로,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1>).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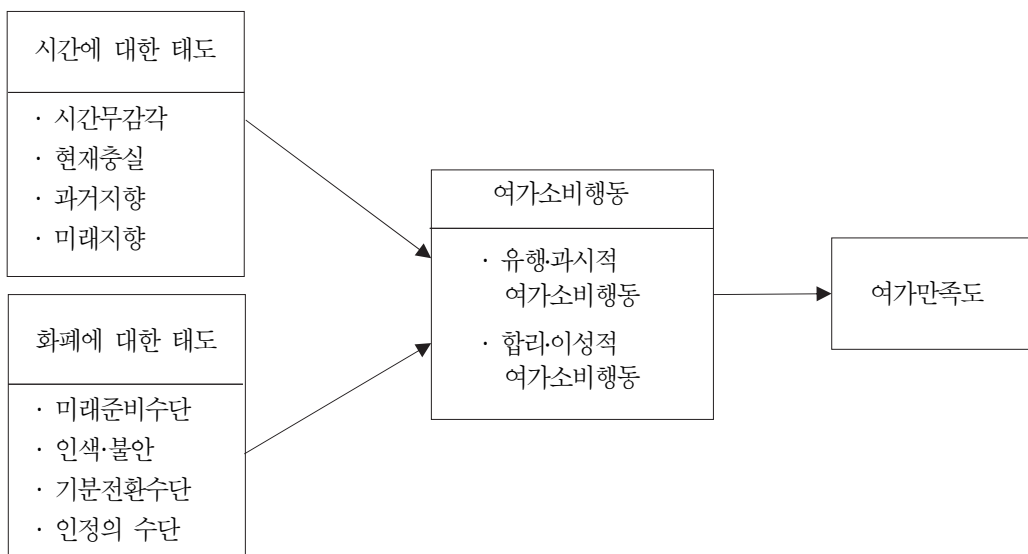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시간에 대한 태도,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간에 대한 태도,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라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여가소비행동 및 여가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월에 주일간 50



<그림 1>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여가소비행동 및 여가만족도의 구조모형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사전 검토한 후, 2011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55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550부 중 총 53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총 512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1)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는 선행연구(Bergadda, 1990; 이정아, 1996; 임가영, 1999)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 15개의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화폐에 대한 태도는 Yamauchi와 Templer(1982), 허경옥·백은영, 정순희(1997)의 연구를 참조하여 1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표 2>).

2)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여가소비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동호(1996), 김종순(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15개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문화관광체육부(2010)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총 5개의 문항 ‘현재 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하루 평균 사용하는 여가시간에 대해 만족한다.’, ‘한 달 평균 지출하는 여가비용에 대해 만족한다.’,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생활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표 1> 시간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 요인 | 문항 | 요인 적재치 | Eigen value (Cronba-ch's α) | 설명량 (누적) % |
|--------|------------------------------------|--------|-------------------------------------|---------------|
| 시간 무감각 | ·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 없다. | .76 | 3.04 (.80) | 20.25 |
| | ·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다. | .73 | | |
| | · 불확실한 일이 많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없다. | .72 | | |
| | · 나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 .69 | | |
| | ·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현재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 | .68 | | |
| | ·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 고생할 필요는 없다. | .62 | | |
| 현재충실 | · 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현재 참고 견디어야 한다. | .86 | 2.38 (.83) | 15.88 (36.13) |
| |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다. | .84 | | |
| | ·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힘든 것쯤은 견딜 수 있다. | .76 | | |
| 과거지향 | · 나는 지나간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 .89 | 2.10 (.74) | 14.02 (50.15) |
| | · 나는 지난 일들에 집착하는 편이다. | .85 | | |
| | · 나이가 들수록 지난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 .64 | | |
| 미래지향 | · 나는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 .81 | 2.07 (.75) | 13.79 (63.94) |
| | · 나는 10년 후 모습을 종종 생각해 본다. | .80 | | |
| | · 과거, 현재, 미래 중 나에게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 | .73 | | |

〈표 2〉 화폐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 요인 | 문항 | 요인 적재치 | Eigen value (Cronba-ch's α) | 설명량 (누적) % |
|---------|----------------------------------|--------|-------------------------------------|---------------|
| 미래준비 수단 | · 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편이다. | .84 | 2.50 (.78) | 14.72 |
| | ·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 | .83 | | |
| | ·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 .77 | | |
| | ·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 .63 | | |
| 인색·불안 | ·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 .71 | 2.44 (.74) | 14.35 (29.07) |
| | · 비싼 물건을 살 때 마다 속아서 사는 것 같다. | .68 | | |
| | · 구매한 물건의 가격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 .63 | | |
| | · 물건을 산후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느낀다. | .62 | | |
| 기분전환 수단 | ·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 .89 | 2.26 (.68) | 13.28 (42.35) |
| | ·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 .87 | | |
| 인정수단 | · 나는 돈을 쓸 때 타인에게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 .75 | 1.63 (.64) | 10.56 (61.92) |
| | ·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돈을 쓴다. | .75 | | |

〈표 3〉 여가소비행동 요인분석

| 요인 | 문항 | 요인 적재치 | Eigen value (Cronba-ch's α) | 설명량 (누적) % |
|-------------|---|--------|-------------------------------------|---------------|
| 유행·과시적 소비행동 | · 나는 유행하는 여가상품, 서비스가 있으면 구매하는 편이다. | .77 | 3.32 (.80) | 25.60 |
| | · 나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여가상품, 서비스를 갖고 싶어 하는 편이다. | .72 | | |
| | · 내가 하는 최신유행 여가활동을 남들이 알아봐주면 즐겁다. | .70 | | |
| | · 나는 새로운 여가활동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 .67 | | |
| | · 나는 주위사람들의 여가상품, 서비스를 눈 여겨 보는 편이다. | .62 | | |
| | · 나는 값비싼 여가상품, 서비스라도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꼭 구매하는 편이다. | .62 | | |
| | · 나는 여가상품을 빌려 쓰기 보다는 소유해야 기분이 좋다. | .62 | | |
| 합리·이성적 소비행동 | · 여가비용 지출을 계획할 때 수입에 비해 적당하기를 항상 생각한다. | .78 | 3.11 (.80) | 23.96 (49.57) |
| | · 여가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상세한 정보를 찾는다. | .76 | | |
| | · 나는 구입한 여가상품, 서비스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 .75 | | |
| | · 나는 의식적으로 여가활동비용의 과소비는 자제한다. | .69 | | |
| | · 나는 할인기간을 이용해 여가상품, 서비스를 구매한다. | .64 | | |
| | · 나는 여가비용을 지출할 때 주위사람의 조언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많이 참조 하는 편이다. | .60 | | |

5개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파악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78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9)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문항들의 요인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교회전방법 중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로 유형화된 집단 간에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가소비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공변량 구조분석(Structural Covariance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성이 284명(55.5%), 여성이 228명(44.5%)이었고, 20대 24.6%, 30대 26.6%, 40대 24.4%, 50대 이상은 24.4%였으며, 평균 연령은 41.1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58%는 배우자가 있었고, 42%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17.8%,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64.6%이었으며, 대학원 이상은 17.6%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217명(42.4%)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이 108명

(21.1%), 판매·서비스·기술직이 14.8%, 무직·학생이 11.9%, 주부가 9.8%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소득은 484.5만원이었고, 401만원~600만원이 37.5%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 비교

1)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시간에 대한 태도유형 비교

<표 1>에서 추출한 시간에 대한 태도 요인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간에 대한 태도 요인 4개와 동일하게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집단1은 시간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90명(17.6%)이 해당되었고, 집단2는 현재충실태도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135명(26.4%)이 해당되었다. 집단3은 169명(33.0%)으로 과거지향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집단4는 118명(23.0%)으로 미래지향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4개의 집단의 명칭은 시간에 대한 태도 요인 4개와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시간에 대한 태도 유형을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시간에 대한 태도가 과거지향 유형에 속하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5세로, 다른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지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집착, 지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고졸인 경우, 현재에 충실하는 시간태도를 가진 경향이 높은 반면, 대졸인 경우에는 과거지향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았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래지향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시간에 대해 무감각한 집단은 월평균가계소득이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요인에 대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12)

| 항목 | 구분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
| 성별 | 남성 | 284 | (55.5) |
| | 여성 | 228 | (44.5) |
| 연령 | 20대 | 126 | (24.6) |
| | 30대 | 136 | (26.6) |
| | 40대 | 125 | (24.4) |
| | 50대 | 125 | (24.4) |
| | 평균 (세) | 41.07 | (9.32) |
| 배우자유무 | 있음 | 297 | (58.0) |
| | 없음 | 215 | (42.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91 | (17.8) |
| | 대졸(전문대포함) | 331 | (64.6) |
| | 대학원이상 | 90 | (17.6) |
| 직업 | 주부 | 50 | (9.8) |
| | 전문·관리직 | 108 | (21.1) |
| | 사무직 | 217 | (42.4) |
| | 판매·서비스·기술직 | 76 | (14.8) |
| | 무직·학생 | 61 | (11.9) |
| 월평균 가계소득 | 200만원 이하 | 50 | (9.8) |
| | 201만원~400만원 | 186 | (36.3) |
| | 401만원~600만원 | 192 | (37.5) |
| | 601만원 이상 | 84 | (16.4) |
| | 평균 (만원) | 484.51 | (264.23) |

*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 비교

<표 2>에서 추출한 화폐에 대한 태도 요인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화폐에 대한 태도 요인 4개와 동일하게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집단1은 화폐를 미래의 준비수단으로 생각하는 유형으로 172명(33.6%)이 포함되었고, 집단2는 화폐에 대해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유형

으로 94명(18.4%)이 포함되었다. 집단3은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으로 161명(31.4%)이 해당되었고, 집단4는 화폐를 인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으로 85명(16.6%)명이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4개의 집단의 명칭은 화폐에 대한 태도 요인 4개와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을 비교한 결과, 연령, 배우자유무,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평균 연령은 화폐에 대해 인식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이 43.2세,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

〈표 5〉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시간에 대한 태도유형 차이검증

| 구분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 | x ² /F |
|---------|------------|-------------------|-------------------|-------------------|-------------------|-------------------|
| | | 시간무감각 (n=90) | 현재충실 (n=135) | 과거지향 (n=169) | 미래지향 (n=118) | |
| 성별 | 남성 | 51 (56.7) | 84 (62.2) | 91 (53.8) | 58 (49.2) | 4.41 |
| | 여성 | 39 (43.3) | 51 (37.8) | 78 (46.2) | 60 (50.8) | |
| 연령 | 평균 (세) | 41.2 (9.4) a | 40.5 (9.5) a | 43.5 (9.0) b | 39.3(9.1) a | 2.49* |
| 배우자 유무 | 있음 | 47 (52.2) | 88 (65.2) | 88 (52.1) | 74 (62.7) | 5.12 |
| | 없음 | 43 (47.8) | 47 (34.8) | 81 (47.9) | 44 (37.3) | |
| 교육 수준 | 고졸이하 | 18 (20.0) | 34 (25.2) | 23 (13.6) | 16 (13.6) | 8.40* |
| | 대졸 | 55 (61.1) | 81 (60.0) | 121 (71.6) | 74 (62.7) | |
| | 대학원이상 | 17 (18.9) | 20 (14.8) | 25 (14.8) | 28 (23.7) | |
| 직업 | 주부 | 10 (11.1) | 15 (11.1) | 12 (7.1) | 13 (11.0) | 4.07 |
| | 전문·관리직 | 16 (17.8) | 28 (20.7) | 33 (19.5) | 31 (26.3) | |
| | 사무직 | 33 (36.7) | 60 (44.4) | 85 (50.3) | 39 (33.1) | |
| | 판매·서비스·기술직 | 17 (18.9) | 20 (14.8) | 24 (14.2) | 15 (12.7) | |
| | 무직·학생 | 14 (15.6) | 12 (8.9) | 15 (8.9) | 20 (16.9) | |
| 월평균가계소득 | | 371.9(281.3) a | 456.5(264.2) b | 501.3(298.9) b | 489.6(276.5) b | 2.89* |

이 42.3세로, 화폐를 미래준비의 수단이나 인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 화폐에 대해 인식함,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의 월평균가계소득(512.1만원)이 화폐에 대해 인식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401.7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소득의 규모는 화폐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가용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화폐가치에 대해 부족함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돈을 쓸 수 있을 정도

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른 여가 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비교

1) 시간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른 여가소비 행동과 여가만족도 비교

시간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라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의 점수는 시간무감각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과거지향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지각에 대해 무감각한 집단은 유행하는 여가상품이나 여가서비스를 구매하고, 과시적인 여가소비행동 선호하는 경향이

〈표 6〉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 차이검증

(n=512)

| 구분 | | 빈도(%) / 평균(표준편차) | | | | x ² /F |
|-----------|----------------|--------------------|-------------------|-------------------|--------------------|-------------------|
| | | 미래준비수단 (n=172) | 인색·불안 (n=94) | 기본전환수단 (n=161) | 인정의수단 (n=85) | |
| 성별 | 남성 | 90 (52.3) | 52 (55.3) | 92 (57.1) | 50 (58.8) | 3.34 |
| | 여성 | 82 (47.7) | 42 (44.7) | 69 (42.9) | 35 (41.2) | |
| 연령 | 평균 (세) | 38.5 (9.1) a | 43.2 (9.5) b | 42.3 (9.1) b | 39.7(9.0) a | 2.51* |
| 배우자 유무 | 있음 | 109 (63.4) | 64 (68.1) | 73 (45.3) | 51 (60.0) | 6.22* |
| | 없음 | 63 (36.6) | 30 (31.9) | 88 (54.7) | 34 (40.0) | |
| 교육 수준 | 고졸이하 | 28 (16.3) | 22 (23.4) | 27 (16.8) | 14 (16.5) | 6.01 |
| | 대졸 | 116 (67.4) | 54 (57.4) | 107 (66.5) | 54 (63.5) | |
| | 대학원이상 | 28 (16.3) | 18 (19.1) | 27 (16.8) | 17 (20.0) | |
| 직업 | 주부 | 15 (8.7) | 11 (11.7) | 14 (8.7) | 10 (11.8) | 5.79 |
| | 전문·관리직 | 42 (24.4) | 19 (20.2) | 30 (18.6) | 17 (20.0) | |
| | 사무직 | 69 (40.1) | 39 (41.5) | 72 (44.7) | 37 (43.5) | |
| | 판매·서비스· 기술직 | 22 (12.8) | 13 (13.8) | 29 (18.0) | 12 (14.1) | |
| | 무직·학생 | 24 (14.0) | 12 (12.8) | 16 (9.9) | 9 (10.6) | |
| 월평균가계소득 | | 473.9(297.5) ab | 401.7(261.4) a | 512.1(299.3) b | 467.6(276.5) ab | 2.94* |

〈표 7〉 시간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른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차이검증

(n=512)

| | 평균(표준편차)1) | | | | F |
|------------------|------------------|-------------------|------------------|-------------------|----------|
| | 시간무감각 (n=90) | 현재충실 (n=135) | 과거지향 (n=169) | 미래지향 (n=118) | |
|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 | 3.35 (0.57) b | 3.23 (0.58) ab | 2.95 (0.62) a | 3.04 (0.62) ab | 10.08*** |
|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 | 3.58 (0.66) a | 3.58 (0.52) a | 3.57 (0.50) a | 3.75 (0.51) b | 2.77* |
| 여가만족도 | 3.07 (0.65) b | 2.96 (0.76) ab | 2.82 (0.65) a | 2.91 (0.70) ab | 3.00* |

* p<0.05, ** p<0.01, *** p<0.001

1) 5점 환산평균.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높은 반면, 과거지향적인 조사대상자들은 유행, 과시적 성향의 여가소비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의 점수는 미래지향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시간가치를 중시하는 집단은 여가와 관련된 소비를 결정할 때, 합리적,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만족도는 시간무감각형 집단에서 가장 높고, 과거지향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른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의 차이검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다. 시간무감각 태도를 가진 집단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고 여가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성·합리적 소비성향 보다는 감성적인 소비성향이 여가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 보다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 점수가 높았지만,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과거지향집단의 경우 유행·과시적, 이성·합리적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

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가소비행동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른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비교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라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 점수는 기본전환수단 집단과 인정의 수단 집단이 미래준비수단, 인색·불안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유행하는 여가상품, 여가서비스를 구매하고, 과시적인 여가소비행동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의 점수는 미래준비수단, 인색·불안 집단이 기본전환수단, 인정의 수단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집단, 화폐에 대해 인색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이 여가소비행동을 보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에 따른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차이 검증

(n=512)

| | 평균(표준편차)1) | | | | F |
|------------------|-------------------|------------------|-------------------|-------------------|----------|
| | 미래준비수단 (n=172) | 인색·불안 (n=94) | 기본전환수단 (n=161) | 인정의수단 (n=85) | |
|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 | 3.09 (0.56) a | 2.95 (0.54) a | 3.40 (0.62) b | 3.35 (0.59) b | 19.45*** |
|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 | 3.77 (0.65) b | 3.68 (0.59) b | 3.29 (0.51) a | 3.35 (0.51) a | 5.57** |
| 여가만족도 | 2.89 (0.68) a | 2.71 (0.70) a | 3.05 (0.63) b | 2.99 (0.69) ab | 2.86* |

* p<0.05, ** p<0.01, *** p<0.001

1) 5점 환산평균.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9〉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 검증

| | | 경로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
| 시간에 대한 태도 | 시간무감각 | → 시간무감각1 | .51 | 1.00 | |
| | | → 시간무감각2 | .74*** | 1.40 | .13 |
| | | → 시간무감각3 | .72*** | 1.32 | .12 |
| | | → 시간무감각4 | .61*** | 1.17 | .12 |
| | | → 시간무감각5 | .52*** | .87 | .10 |
| | | → 시간무감각6 | .71*** | 1.23 | .11 |
| | 현재충실 | → 현재충실1 | .81*** | 1.10 | .06 |
| | | → 현재충실2 | .85*** | 1.16 | .06 |
| | | → 현재충실3 | .72 | 1.00 | |
| | 과거지향 | → 과거지향1 | .80*** | 1.62 | .15 |
| | | → 과거지향2 | .88*** | 1.81 | .17 |
| | | → 과거지향3 | .48 | 1.00 | |
| 미래지향 | → 미래지향1 | .65*** | 1.09 | .08 | |
| | → 미래지향2 | .84*** | 1.11 | .07 | |
| | → 미래지향3 | .68 | 1.00 | | |
| 화폐에 대한 태도 | 미래준비수단 | → 미래준비수단1 | .67*** | .87 | .06 |
| | | → 미래준비수단2 | .79*** | 1.08 | .06 |
| | | → 미래준비수단3 | .78 | 1.00 | |
| | | → 미래준비수단4 | .52*** | .69 | .06 |
| | 인색·불안 | → 인색·불안1 | .61*** | 1.41 | .16 |
| | | → 인색·불안2 | .56*** | 1.26 | .15 |
| | | → 인색·불안3 | .47 | 1.00 | |
| | | → 인색·불안4 | .49*** | 1.09 | .14 |
| | 기본전환수단 | → 기본전환수단1 | .92*** | 1.14 | .05 |
| | | → 기본전환수단2 | .46*** | .76 | .04 |
| | 인정의 수단 | → 인정수단1 | .49*** | .88 | .10 |
| | | → 인정수단2 | .59 | 1.00 | |
| 여가 소비행동 |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 | → 유행과시여가1 | .38*** | .58 | .07 |
| | | → 유행과시여가2 | .55*** | .89 | .08 |
| | | → 유행과시여가3 | .64 | 1.00 | |
| | | → 유행과시여가4 | .52*** | .90 | .09 |
| | | → 유행과시여가5 | .60*** | .85 | .07 |
| | | → 유행과시여가6 | .78*** | 1.22 | .08 |
| | | → 유행과시여가7 | .61*** | 1.04 | .09 |
| |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 | → 합리이성여가1 | .43* | .71 | .08 |
| | | → 합리이성여가2 | .62* | 1.00 | |
| | | → 합리이성여가3 | .64 | 1.00 | |
| | | → 합리이성여가4 | .55* | .84 | .07 |
| | | → 합리이성여가5 | .77* | 1.21 | .08 |
| | | → 합리이성여가6 | .70* | 1.07 | .08 |
| 여가만족도 | | → 여가만족1 | .79*** | 1.30 | .09 |
| | | → 여가만족2 | .73* | 1.24 | .09 |
| | | → 여가만족3 | .63 | 1.00 | |
| | | → 여가만족4 | .77* | 1.35 | .09 |
| | | → 여가만족5 | .78* | 1.29 | .09 |

* p<0.05, ** p<0.01, *** p<0.001

여가만족도는 기본전환수단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느끼는 집단의 경우,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고 여가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른 여가소비행동 차이 검증에서 시간무감각 집단이 보여주었던 특성과 유사하다. 또한 미래준비수단, 인색·불안 집단의 경우,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 점수가 높은 반면, 여가만족도 점수는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4.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소비행동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에 투입되는 잠재변수를 고려한 확인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분석의 최적 상태는 일반적합지수(GFI: Goodness-of-Fit Index), 조정적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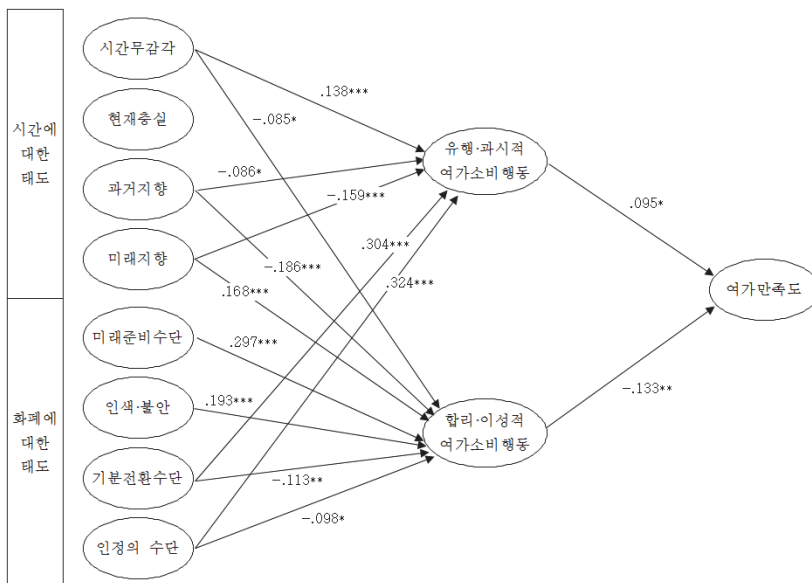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원소간 평균잔차(RMR: Root Mean Squared Residual), 모집단 원소간 평균잔차(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김계수, 2004).

분석결과 X^2 값은 2,503.7, GFI는 0.837, AGFI 0.815, RMR과 RMSEA는 각각 0.050, 0.045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의 유의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측변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여가소비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 <표 10>과 같다.



<그림 2>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여가소비행동 및 여가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표 10〉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 여가소비행동 및 여가만족도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 경로 | | 표준화계수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
| 시간에 대한 태도 | 시간무감각 → 유행·과시여가 | .138*** | .134 | .038 |
| | 현재충실 → 유행·과시여가 | .051 | .046 | .038 |
| | 과거지향 → 유행·과시여가 | -.086* | -.076 | .037 |
| | 미래지향 → 유행·과시여가 | -.159*** | -.146 | .039 |
| | 시간무감각 → 합리·이성여가 | -.085* | -.074 | .034 |
| | 현재충실 → 합리·이성여가 | -.106 | .152 | .035 |
| | 과거지향 → 합리·이성여가 | -.186*** | -.044 | .033 |
| | 미래지향 → 합리·이성여가 | .168*** | .140 | .035 |
| 화폐에 대한 태도 | 미래준비 → 유행·과시여가 | .049 | .046 | .036 |
| | 인색·불안 → 유행·과시여가 | -.067 | -.072 | .045 |
| | 기본전환 → 유행·과시여가 | .304*** | .200 | .027 |
| | 인정 → 유행·과시여가 | .324*** | .292 | .034 |
| | 미래준비 → 합리·이성여가 | .297*** | .250 | .033 |
| | 인색·불안 → 합리·이성여가 | .193*** | .187 | .041 |
| | 기본전환 → 합리·이성여가 | -.113** | -.067 | .024 |
| | 인정 → 합리·이성여가 | -.098* | -.079 | .031 |
| 여가 소비행동 | 과시·유행여가 → 여가만족도 | .095* | .107 | .049 |
| | 합리·이성여가 → 여가만족도 | -.133** | -.165 | .054 |

모형적합도 GFI=.981 AGFI=.929 NFI=.952 CFI=.957 RMR=.015 RMSEA=.103

Chi-square =57.932***

** p <.05, * p <.01, *** p <.001

전체적인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증한 결과, $\chi^2=57.932$, GFI(Goodness-of-Fit Index)=0.981, NFI(Normed Fit Index)=0.952, CFI(Comparative Fit Index)=0.957, RMR(Root Mean Squared Residual)=0.015, RMSEA(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0.103으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간무감각 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거지향적 태도, 미래지향적 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대한 태도가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간무감각 태도와 과거지향적 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미래지향적 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에 대해 무감각할

수록 여가상품이나 여가서비스를 구매하고, 과시적인 여가소비행동이 증가하고, 합리적, 이성적인 여가소비행동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래지향적 태도는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시간가치를 중시할수록 유행을 따르는 현시적 소비 보다는 합리적, 이성적인 여가소비행동을 통해 미래의 더 큰 효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과거지향적 태도는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과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에 대한 태도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 인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폐에 대

한 태도 4가지 요인이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폐를 미래준비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 화폐에 대해 인식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 인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를 미래준비의 수단으로 인식할수록, 화폐에 대해 인식하고 불안감을 갖고 있을수록 여가소비행동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가소비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이나 인정의 수단으로 인식할수록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은 여가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은 여가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즉,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출비용을 줄이는 이성적인 여가소비활동은 여가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반면, 유행을 따르거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여가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활동은 여가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여가소비활동이 주관적 만족감을 강화하는 행동이고, 이성 보다는 감성적 활동에 가까우며, 소득탄력성이 큰 지출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성적 측면의 소비행동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주요 자원인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을 분류한 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이들 태도유형 집단 간에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여가소비행동을 매개로,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에 대한 태도유형은 시간무감각, 현재충실, 과거지향, 미래지향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은 미래준비수단, 인식·불안, 기본전환의 수단, 인정의 수단으로 구분되었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과거지향적인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았고, 고졸은 현재에 충실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래지향적 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았으며, 시간에 대해 무감각한 집단의 월평균가계소득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화폐에 대해 인식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었으며, 월평균가계소득이 가장 낮았다. 반면,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은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가계소득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는 연령, 교육수준과 소득 등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변화에 따라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간에 대해 무감각한 집단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과거지향집단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여가만족도 역시 시간무감각집단이 가장 높았고, 과거지향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미래지향집단의 경우,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의 점수는 다른 집단 보다 높은 반면,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합리적 여가소비행동 보다는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이 여가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유추 가능케 한다. 또한 과거지향 집단은 유행·과시적, 이성·합리적 여가소비행동과 여가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현재의 여가행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여가활동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방식과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과거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이나 인정의 수단 집단으로 여기는 집단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화폐를 미래준비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화폐에 대해 인식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은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인지하는 집단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 뿐 아니라 여가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무감각 집단이 보여주었던 특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에 대해 무감각하고,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의 경우,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에 의해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성적인 여가소비행동을 증진하고 실효성 있는 여가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시간에 대한 태도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간무감각 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거지향적 태도, 미래지향적 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간무감각 태도와 과거지향적 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미래지향적 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태도는 현재의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증가시키고,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 미래를 계획하고 지향하는 태도는 현재의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을 증가시키고,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을 감

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여가소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개인의 태도를 고려한 여가활동의 선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화폐에 대한 태도가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 인정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폐를 미래준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화폐에 대해 인식하고 불안감을 갖는 태도는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 인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를 기본전환의 수단, 인정의 수단으로 생각할수록 유행을 따르고 과시적인 여가소비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소비행동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동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유행·과시적 여가소비행동은 여가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합리·이성적 여가소비행동은 여가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유행을 따르거나 과시할 수 있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때, 여가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 측면의 여가소비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여가활동의 생산성 증진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화폐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여가소비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가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신욱(1998). 사회교육프로그램 참가와 여가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7(4), 87-98.
- 2) 강형길·임진선·조희태(2014). The role of time perspectives in leisure involvement and attitudes.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166-175.
- 3) 강효민·남재화(2000). 야외 스포츠활동 참가와 자유인지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3(1), 13-24.
- 4) 구순목(2001). 한국인의 여가소비 지출구조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테이터솔루션.
- 6) 김기찬(1983). 시간변수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동호(1996). 소비성향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영숙(2004).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7(4), 83-98.
- 9) 김영숙·심미영(2004). 도시 가계의 여가오락 서비스 소비지출구조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7(1), 131-143.
- 10) 김영숙·이신정(2005). 성인 소비자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71-783.
- 11) 김영신(2001).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66.
- 12) 김정훈·동환숙(1999). 남녀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의 금전관리 만족도와 생활양식 만족도에 대한 영향. 생활자원개발연구, 1, 20-28.
- 13) 김정훈·동환숙(2002).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37-247.
- 14) 김정훈·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 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15) 김종순(2005). 직장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소비성향의 유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문숙재·정순희·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교문사.
- 17) 박문환·이제홍(1997). 여성의 생활체육 참가와 자아개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6(4), 102-113.
- 18) 박은아(1994). 자기 존중감, 사회적 인정 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시적 소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박정숙·차경옥(2003).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대한가정학회, 41(6), 13-28.
- 20) 방지선·하지원(1997). 여성의 스포츠 참여 형태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8, 53-66.
- 21) 백숙현(2003). 주부들의 시간부족지각이 기능성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백은영(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 및 지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서창호(1997). 초등학교원의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오희웅(2010). 청소년들의 스포츠 가족여가활동과 사회성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우석봉(2006).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행동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522-523.
- 26) 우은정(2008). 사업체급식소 이용자의 소비행

- 태와 화폐태도에 따른 가격탄력성 및 가격민감성 차이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윤소영(2007). 사회적 여가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8) 윤소영·차경욱(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 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97-107.
- 29) 윤철경·조아미(2004). 청소년의 소비관련 태도가 충동 구매성향과 강박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1), 111-123.
- 30) 이경자(1984). 현대사회에서의 여가 가치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3(2), 17-25.
- 31) 이남미·이근모(2010). 대학생들의 시간관리 행동과 여가태도, 생활만족도 그리고 자아실현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 837-849.
- 32) 이미연(2004). 대학생의 여가자원과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이상미(2009). 노인의 수행능력과 사회성이 여가활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이성철·현무성(2002). 유아의 조직적인 체육놀이 활동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8, 483-498.
- 35) 이신정(2005). 성인소비자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소비생활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이정아(1996). 소비자의 시간지각과 정보탐색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이정연·심미영·김영숙(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여가생활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87-305.
- 38)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9) 이철원·여인성(2001). 한국사회의 여가소비행태에 관한 분석.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자료집, 23-25.
- 40) 이현아·이기영·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41) 임가영(1999). 시간인식유형에 따른 의류제품 및 점포평가기준이 점포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장재윤(2000). 동기지향성과 돈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사회과학논집, 3(1), 317-337.
- 43) 정보현(2001). 소비자 특성에 따른 여가선호도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4) 정영아(2007). 소비자의 시간지각과 여가소비행동 관계: 20~40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한성유·성기환(2011).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소비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1), 27-38.
- 46) 허경옥(2006). 삶의 경제.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47) 허경옥·백은영, 정순희(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48) 홍성희·문숙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53-174.
- 49) 홍은실(2005). 중, 고,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청소년 단계와 성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50) Bergadda, M. M.(1990). The role of time in the action of the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289-301.
- 51) Caldwell, L. & Weissinger, E.(1994). Factors influencing free time boredom in sample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rapeutic*

- Recreation Journal*, 1, 18-24.
- 52) Fines, L. & Nichols, D.(1994). An evaluation of a twelve week recreational kayak program; Effects on self-concept,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 of adults with traumatic brain injuries. *Journal of Cognitive Rehabilitation*, 12, 10 -15.
- 53) Furnham, A.(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95-103.
- 54) Goldberg, H. & Lewis, R.T.(1978). Money madness: The many sides of coin.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 Inc.
- 55) Gordon, W. & Caltabiano, M.(1996). Urban-rural differences in adolescent self-esteem, leisure boredom and sensation-seeking as predictors of leisure-time. *Adolescence*, 31(124), 883-901.
- 56) Graham, Robert J.(1981). The role of perception of time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335-342.
- 57) Kaplan, M.(1975). Leisure: Theory and policy. New York: John Willey.
- 58) Roberts, J. A., & Jones, E.(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53(2), 213-240.
- 59) Tang, T. L. P., Gilbert, P. R.(1995). Attitudes toward money as related to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stress and work-related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3), 327-332.
- 60) Tang, T. L.(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13, 197-202.
- 61) Yamauchi, K. T., & Templer, D. I.(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

- 투 고 일 : 2015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5년 4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5월 25일